

구세주는 감로 이슬성신을 내려야

사람은 다 조상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조상을 모른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단군 할아버지인데 단군 할아버지가 곰이 낳은 자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자식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 백성들의 습관을 더듬어보면 대략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배움을 입고 곡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구 땅위에서 배움 입고 곡을 하는 민족을 찾아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이 배움을 입고 곡을 하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움을 입고 곡을 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대로 제사를 지낼 때 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만이 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지, 다른 나라는 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 산소, 산소마다 돌 제단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로 옮겨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이삭에게 옮겨지고 이삭의 하나님의 신이 야곱에게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자 축복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에게 옮겨졌느냐 하면 바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입니다.

야곱은 본처 라헬과 첩 레아를 두었습니다. 첩 레아가 자식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네 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본처 라헬은 자식을 하나도 못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생각할 때,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인가 보다'하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면 네 몸중 빌하를 당신 방에 넣어 줄 테니 빌하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니까 야곱이 "좋다"고 해서 라헬의 몸중 빌하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 자식을 빌하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라헬의 자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

름을 낳자마자 '단'이라고 했는데, 왜 단이라고 했냐면 비록 몸중 몸에서 태어났지만 본처가 되는 라헬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고로 심판자라는 뜻의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단에게 하나님의 신을 옮기고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씀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인 고로 사람, 사람 속에 다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을 라헬이 직접 난 자식에게 옮긴 것이 아니고 몸중 몸에서 난 자식에게 옮긴 것은, 마귀를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구세주는 한국 땅에서 출현

우리 민족은 단지파의 자손인 고로 그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배움 입고 곡을 하고 할머니들이 동짓날만 되면 문설주에 팔죽을 바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가 있는데,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애굽 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응하지 아니했던 애굽 나라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너희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다 건너가게 하여 애굽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중을 이끌



구세주 조희성님

고 나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우리들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굶겨 죽이려느냐?' 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려와 눈처럼 쌓이게 되니까 그것을 삼태기로 파다가 먹고 살았는데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구세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예수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6천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야 이슬을 내리는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섬돌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

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방나라 하면 한국 나라와 일본 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국 나라와 일본 나라가 동방나라인데 '섬돌아 잠잠하라' 했으니까 일본 나라는 섬나라인 고로 조용히 해라. 너희 나라에서는 의인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구세주가 나오는 고로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주가 한국 사람으로 나타나는 데 이 사람이 단에만 서면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진을 찍으면 찍혀 나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사람 속에는 죄가 있는 고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 렌즈는 죄가 없는 고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감춰던 만나인 이슬성신을 내리는 사람인 고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진짜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마귀가 들려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매일 보면 죽지 않습니다. 이슬성신을 받는 고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사에서 에덴동산, 하늘나라가 회복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박물관을 찾아가봐라, 박물관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 중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여 있는 기왓장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신사훈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는 '도착을 했다'고 써여 있고 또 하나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고 써여 있는데,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건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뜻인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던 것입니다.

격암유록에 '시종간야 소사지(始終艱野 素砂地)'라고 써여 있는데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에덴동산, 하늘나라가 옛날에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속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김 사장님도 우리놈 광산을 파다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어, 해봐' 라는 응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늘나라가 무너져도 소사에서 하늘나라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뜻의 말입니다.

격암유록에 '시종간야 소사지'라고 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단은 소사 땅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다른 곳에 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사 땅 440평 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람 61세 때에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격암유록에 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61세 때가 바로 91년도인데, 91년도에 이 건물 준공 필증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 61세 되는 생일날 8월 12일에 헌당예배를 본 것입니다.

헌당예배를 보고 나서 - 이미 일년 전 90년도에 공산주의를 없애버린 후 -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원들한테 불려서 3일 동안 연금됐다가 풀려나오는 날, 무지개가 서었습니다. 연금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단상에서 '고르바초프가 곧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이른날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말만 던지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91년도 8월 23일에 무지개가 선다는 것이 격암유록 감을론에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 예언서에 정도령 61세 때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무지개가 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를 만나고도 구원을 못 얻고, 영생을 못 얻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삼대적역을 해야 정도령을 만날 수 있어

진짜 구세주를 만났으니 틀림없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왓장에 이스라엘 말이 써여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백성들이 흰 옷 입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동양사에서는 백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흰 옷 입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죽으면 배움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하고 곡을 한다고 써여 있습니다. 이 지구 땅위에 '아이고, 아이고'하고 곡을 하는 나라는 한국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 참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세계가 한 가족처럼 사는 오늘날에 와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모신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인 고로 하나님의 직계자손입니다. 이 진리의 제단은 영생할 사람만 오는 곳이지, 영생하지 못할 사람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는 삼대적역을 한 사람이나 정도령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정도령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삼대적역을 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6장 40년의 광야생활》

(10) 가나안을 정탐하다

(10) 가나안을 정탐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 자신을 보필하는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잇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일명 여호수아), 벤야민 지파에서는 말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스투,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모세는 가나안 쪽의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가나안도 그리 멀지 않은 하늘 밑에 있소"

열 두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모세가 가리킨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살이 알아보고 내게 보고해 주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은 이제 남쪽 길로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지해야 하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벽으로 쌓여 있는지도 알아보시오. 또한 땅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도 알아보고, 나무가 말라비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싱싱하게 살아서 우거져 있는지 살펴야 하오. 여러분은 용기 있고 담대해야 하오. 그 땅에 열린 열매가 있으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열매도 따오시오"

이 명령을 들은 열두 사람 가운데는 겁을 집은 먹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대신 희망에 찬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마침 포도가 타스럼게 열리는 포도의 계절이었습니다. 12명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다

의 정탐군은 네게브(네펴)광야를 경유하여 에스골 골짜기 동편 헤브론을 지나 가나안의 최북단 험문산(Mt. Hermon) 너머에 있는 하맛(Hamath)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때 헤브론이란 곳을 정탐하였는데, 그곳에 거하는 네피림 후손인 아나 자손의 거인(巨人)들을 보았습니다.

또 헤브론의 서편에 에스골이란 골짜기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포도송이가 한창 열려 있었습니다. 열두 사람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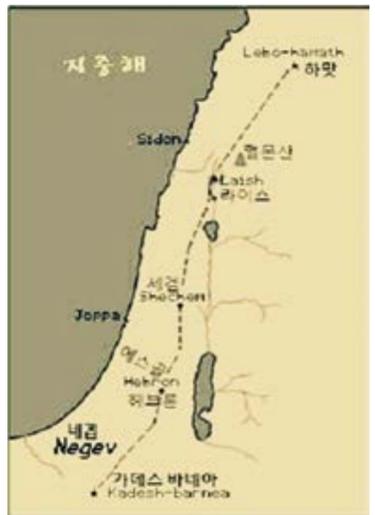
"포도가 열렸다. 포도가!"
"이 포도송이를 따 가자!"
"아! 굉장하 큰 포도송이네."
"머리 위에 떨어지면 흑이라도 생기겠

네!"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포도송이가 열려 있었습니다. 열두 사람들은 장작만큼 굵은 포도의 가지들을 꺾어,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꿰어 두 사람씩 메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사람은 메고 온 무거운 포도송이를 내려놓고 모세에게 가나안의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가서 살살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과 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메고 온 포도송이가 그 땅에서 따 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 대형 수포 포도송이를 어루만지면서 흡족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들을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나안 정탐 경로

가데스 바네아의 진영에 있던 6만 명의 군사들은 서로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중에는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를 저어면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포도송이가 열리는 기름진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사납습니다.*"